

신한바이오켐, 2015년도 시무식 및 사업보고회

우수 제품 생산 · 공급으로 축산업 경쟁력확보에 기여
'Project 100' · '천국 같은 직장 만들기' 조성 노력



▲ 신한바이오켐 임직원들은 2015년 시무식 및 사업보고회를 갖고, 우수한 제품 생산 · 공급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동물약품회사인 신한바이오켐이 새해 시무식을 갖고, 올해도 우수한 제품을 생산 · 공급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신한바이오켐(회장 구본현)은 지난달 2·3일 양일간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시무식 및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무식은 올해 입사한 경력사원 소개와 함께 우수사원에 대한 시상식, 직원 상호간 신년 인사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구본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축산이 생존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사가 더욱 우수한 제품을 생산 ·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이제까지 나와 내 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 준 한국 축산에 자사가 보답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직원 모두는 절실함을 갖고, 검증된 기술력을 통해 우수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신한바이오켐 전 임직원은 “2015년도 목표로 설정한 '신한바이오켐 Project 100'과 '천국 같은 직장 만들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우** 【윤진상】